

구보 씨, 건축사로서 살아남기

Mr.Gubo, the architects' survival

구만열 | (주)건축사사무소 한독

잔설로 얼어붙은 양재천 바닥 길을 걷고 있다. 찬바람이 얼굴을 세차게 스치고 지나간다. 몇 달 전 순위 동서가 돌아 가셨다. 건강하셨지만 약간 비만이셨다. 느닷없이 다가온 일이었다. 폐혈증이였다. 그래서 삶은 알 수 없나 보다.

공간건축이 부도났다는 소식이 뉴스로 날아든다. 직접적으로 설계비 수금이 잘되지 않았고 또한 공공발주위주의 수주로 다변화되지 않은 수주형태를 부도의 원인이라는 분석을 붙여서 소식은 전한다. 우리나라의 대표 설계사무소이며 공간이란 잡지로 대표되는 문화의 아이콘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에 가슴 먹먹하다. 세상이 참으로 무자비하구나!

구보 씨는 최근에 해외에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설계를 디자인 앤드 빌드 방식으로 하는 국제 현상을 했다. 맨 파워가 부족하여 다른 팀과 협력하여 설계 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외국어에 대한 능력 부족과 설계 조직 맨파워 부족이다. 그리고 건설관계자들의 설계자에 대한 존중하지 않는 환경이다. 일을 진행 할 때 많은 마음고생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창조적인 작업이 되지 않고 자신감 부족에... 따라서 일의 효율도 떨어졌다. 우리의 설계환경은 다른 나라보다도 설계자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열악하다. 외국 설계사무소와 같이 일해 보니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결국 사무실이나 사람이나 생존은 생태환경 속에서의 일하는 사람과 조직의 능력과 효율에 좌우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탄키를 되도록 지양하고 심의내용을 완전히 오픈한다는 뉴스가 건축사 신문에 나와 참으로 잘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신선했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탄키제도는 행정과 건설회사중심의 틀을 위주로 하여 일부 대형 설계회사에 유리한 환경이었다. 새로이 시작하는 건축사에겐 역으로 깨기 어려운 유리천장이다.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것이 설계환경의 틀이다. 틀은 제도다.

승효상 님의 책제목 “오래된 것은 아름답다”라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

왜 오래된 것은 아름다울까?

아마도 긴 시간 겪어낸 내재적 힘이 밖으로 표출된 것이 아닐까? 강한 것이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가는 것이 강한 것이라는 영화 속 대사가 머리에 맴돈다. 건축사로서 내적힘이란 건설의 밑그림을 만드는 틀 짜기가 아닐까? 건축설계는 건축 관련 모든 프로젝트의 기본이고 틀이다. 건축사는 이 틀을 짜는 작가이고 진행을 주도하는 감독이다. 자본의 힘과 건설의 논리를 아우르는 재미있는 건축 설계의 이야기가 아름답고 오래갈 수 있을 것이다. 구보 씨는 수신하며 자중자에 할 일이다. 자신의 자존감은 모든 것의 시작이다. 자신의 일을 존중부터 하여야 남이 나를 존중하여 줄 것이다. 계획 설계, 그냥 함부로 무료로 연탄재 차듯이 하지 말기부터 하자. 제주도에서 일하시는 건축사님으로부터 자신의 작품을 넣은 연하장을 받았다. 참으로 멋진 위안이 된다. 귀에 맴돈다.

“떠나요. 들어서
모든 것을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필자는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와 동대학 환경대학원을 졸업했다.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지면찬/F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생각난다. 제주도 깊고 푸른 밤.
행복하자. 우리 모두 🌌